

전문가 요청

윤리경영과 경영진의 역할



장대철
(KAIST 경영대학)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서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리경영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윤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청렴 기준을 강화하면, 또는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면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조직윤리의 문제이다. 매출을 확대시키거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관행으로 둔갑하거나 조직의 압력에 의해서 묵인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돈을 버는 한 어떤 방법도 괜찮다는 조직 문화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매일 보는 같은 부서 또는 같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심지어는 동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문화적 윤리의 문제는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계층적 구조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다. 현재 많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영진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경영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기업윤리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은 윤리경영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이고 윤리적 조직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솔선수범은 투명성에서 나오게 된다. 경영진의 투명성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럼, 기업의 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과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윤리경영을 잘 하는 부하들을 칭찬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은 말이 아니라 성과지표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윤리적으로 행동을 할 때 아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즉 청렴한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윤리적인 행동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다. 윤리적인 조직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둘째, 경영진은 윤리경영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 매출을 위해서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는지 생각해 보면 조직이 윤리경영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비용을 쓰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것을 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이와 함께 윤리경영 이슈는 대부분 부서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결국 전사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이 이러한 윤리 경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즉, 윤리적인 문제는 전사적인 조정의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면, 법무부서에서는 판매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마케팅 부서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설정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중소기업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 요지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꼽았다. '익명제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대기업이라는 '갑'의 횡포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했던 중소기업에 안전하게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27429>

감정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들 증가

최근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수 사례로 꼽힌 A기업은 고객 불만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고 매년 한 차례씩 감정노동 직원들에게 우울증 및 스트레스 테스트, 필요시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B기업은 정신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무인 검진기를 직원 탈의실에 설치해 언제든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41219/68628954/1>

코िका 조달사업, 벤처·중소기업에 '문턱 낮춘다'

한국국제협력단(코िका)은 '문턱은 낮추고, 책임을 강화한' 원조 조달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연간 발주계획 및 사전 공고제도를 정착시켜 협력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구호 물자를 포함한 해외원조 물류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거래 관계에서 파트너십으로 계약관계를 전환하고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2/19/0302000000AKR20141219049700371.HTML>

:: 해외 윤리경영 동향

CSR 의무화 인도, 첫해 실적 기대이하 예측

인도정부는 2013년 '순자산 규모 50억 루피(869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1,769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8.7억원) 이상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은 직전 회계연도 3개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사회적 책임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을 공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지난해 4월부터 발생했음에도 해당 기업이 순이익의 2%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유만 공시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뜻 나서기보다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서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kosri.com/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886

인도, 공인회계사 CSR 인증 코스 운영

인도 공인회계사 협회(ICAI,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India)는 최근 공인회계사 교육과정 일부를 수정하였다. ICA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코스를 만들어 회계사들이 CSR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커리큘럼은 앞으로 10년간 ICAI의 공식 교육과정이 된다. ICAI에 따르면 이미 8만5,000여 명의 학생들이 CSR 인증코스를 이수했고 인도 케랄라 주에서는 이미 1만 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들이 교육을 이수해 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와 관련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http://www.kosri.com/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884

비즈니스 리더들, 에볼라 대응 위해 협력

2014년 12월 11일 뉴욕에는 150명 이상의 기업, 시민 사회, 정부 및 유엔의 대표들이 '글로벌 에볼라 대응을 위한 유엔-비즈니스 협업의 효율성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재단 및 '유엔에볼라긴급대응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본 토론회는 에볼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증대 및 강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50여 개가 넘는 주요 다국적 기업 및 많은 아프리카 기업들은 이미 에볼라 근절에 관한 글로벌콤팩트 '기업 행동 서약'에 서명하였다.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617&uid=869&mod=document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글로벌 리포트

국가별 윤리경영 장려 제도,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여 윤리경영 노력을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영국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신문사의 휴대전화 해킹 스캔들, 은행 기업들의 리보금리 조작¹⁾과 불법 거래 등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영국에서도 윤리적 이슈가 기업 경영에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 기업윤리연구소가 2013년 FTSE 350²⁾기업의 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기업의 68%는 최근 3년간 기업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고 대답했다. 이는 영국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뇌물수수법

영국은 뇌물수수법(Bribery Act)을 제정하여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 뇌물죄와 해외 뇌물죄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는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 외에도 영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뇌물수수 적발 시에는 무제한적 벌금에 최고 10년 형과 정부조달 참여금지, 이사회 자격 박탈, 자산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1)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가 2008년 은행 간 단기 금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런던 은행 간 금리(리보)'를 조작한 사건

2)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자본 규모가 가장 큰 350개 기업

윤리경영 스토리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경영진 및 CEO의 윤리경영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자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부도덕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글로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볼 시점인 듯하다. 비즈니스 이슈를 다루는 Performance Journal이 2013년 발간한 '윤리적 리더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산(Ethical Leadership: A Legacy for a Stronger Future)' 보고서는 리더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다루었다.

기업의 윤리적 리더십이란?

윤리적 리더십이란 조직의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의 균형을 맞추어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안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위가 높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리더일수록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ERC(Ethics Resource Center)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 '윤리적 리더십: 리더가 분위기를 조성한다(Ethical Leadership: Every Leader Sets a Tone)'에서는 경영자의 행동과 직원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윤리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혔다. 직원들은 주로 ① 개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한 리더의 전반적인 성격, ② 고위 경영자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③ 리더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채택한 정책과 절차를 보고 리더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리더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윤리적 리더가 궁극적으로 조직의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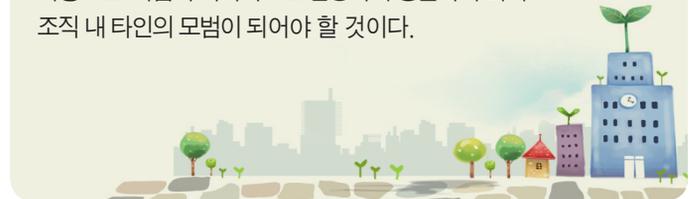
받아들이려면 여러 의문점이 제기될 것이다. 최근에 왜 이토록 리더의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 것일까? 이는 윤리적 요소가 아직 많은 기업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목록에는 윤리적 리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나타나있다.

윤리적 리더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리더가 지배구조 체계의 설립과 기능, 중요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 리더가 이러한 체계들이 기업이 직면한 이슈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가?
- 리더가 팀의 비판과 의문 제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 리더가 조직의 가치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명확하게 소통하고, 이러한 가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 기업이 적절한 익명 피드백 메커니즘을 수립하였는가?
- 리더가 가치를 실현하고 솔선수범하는가?

결어

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가치를 훨씬 넘어서 더 넓은 사회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이 인류의 전반적인 진보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윤리적 리더들은 기업의 확대된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 조직 내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

영국의 CSR 정책

영국의 CSR 정책은 유럽에서 가장 발달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될 정도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정부, 기업, NGO, 노동 등의 사회 각 구성원들로 구성된 CSR 아카데미를 통해 CSR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CSR 차관(차관보급)을 임명하였으며, 2008년에는 '과실치사에 관한 기업책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사례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영국 런던에 있는 버진그룹(Virgin Group)은 가장 사랑받는 영국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에 있어 선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위치에서 영세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등한 관계를 넘어 하청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결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질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어 오늘날 40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비영리기구의 윤리경영 실천 지원

윤리경영 평가 지수, BITC

영국 사회적 기업 컨설팅 비영리기구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에서 만든 윤리경영 평가 지수인 'BITC 지수'는 지역 사회, 환경, 시장, 직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BITC 가입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계량화한 이 지표를 참고하여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공익신고 장려 및 공익신고자 보호

영국의 PCaW(Public Concern at Work)는 1993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자선단체로서, 직장 내에서의 비리에 관한 문제 제기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무료 비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관련 정책과 법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 관련 법령의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13년 공익신고법을 개정하여 내부고발자를 괴롭힌 직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의 딜레마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전자업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윤리경영 이슈와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업계는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업체들은 협력사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어 노동자 인권 보호, 분쟁광물, 공정경쟁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전자업체들은 제품 생산 방식 및 기업 경영 방식에 있어 윤리경영 실천 노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슈 1 제품 생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 인권경영

글로벌 전자업체들은 제조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있는 만큼 미성년자 이동에 대한 노동 착취, 부당한 임금 지급,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노동자를 상대로 한 비윤리적 행위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업체들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협력사의 윤리경영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사례 국내 전자업체, 외국업체 비해 인권경영 뒤처져

국내 전자업체들이 다른 글로벌 전자업체들에 비해 인권경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부 전자업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권 보장의 핵심 기준인 '결사의 자유'나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요 외국업체들은 지속 가능보고서에서 유엔인권선언, 유엔글로벌컴팩트,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보이며 전자시민연대의 강령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슈 2 글로벌 기업윤리 쟁점으로 부상한 '분쟁광물'

글로벌 전자업체들 사이에서 '분쟁광물' 사용 여부가 기업 윤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분쟁 광물이란 분쟁 지역이나 인권 탄압 시비가 일고 있는 지역에서 무장 단체의 자금원으로 생산되는 광물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였고, 기업들도 분쟁광물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례 19% 불과한 분쟁광물 인증 제련소

국내 한 전자회사의 납품업체들이 217개 제련소에서 주석, 텅스텐 등 4대 광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제련소의 상당수는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을 받지 못한 곳으로, 인증 받은 제련소는 19%인 41개사에 불과했다. 해당 업체는 미인증 제련소의 인증 취득을 권고하고, 최신 인증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분쟁광물 업체로 지정되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납품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슈 3 전자업계의 윤리경영 자정노력

고객들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전자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윤리경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일정한 정도 표준화된 의무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 공헌에 참여하여 윤리적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사례 전자업계 CSR 강화하는 전자산업시민연대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연대인 '전자산업시민연대'에 가입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자산업시민연대는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는 취지로 전자업계의 글로벌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에 최소 1차 협력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80여 개 기업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가입한 기업은 전자산업시민연대가 제안하는 노동, 윤리, 환경,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등 5개 분야의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결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전자업체의 윤리경영은 해외업체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비교해보면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윤리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노력,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자업계의 윤리경영 이행 의지가 꾸준히 계속된다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자기술만큼이나 전자업계의 윤리경영 또한 그 빛을 발하리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행사
브리핑

2014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4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그 사례를 확산하고 산업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대우조선해양건설(대기업 부문)과 희상건설(중견기업 부문)에게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많은 사회 공헌 활동과 비리 사전 차단시스템 운영이 돋보였고, 희상건설은 투명한 원하도급 계약과 상생협력 부문에서 우수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에는 (주)금성백조주택, (주)화성개발, 동우건설산업(주), 덕진토건(주), 대선건설(주)이 선정되었다.



감성 메시지



윤리적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 평가 받는 피터 드러커는 '경영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영자들이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또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매 순간에 옳은 일을 했다면, 올이년 시작에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 대신 어떠한 뉴스가 언론과 지면을 장식했을까요? 잘못된 의사결정이 쌓이고 쌓여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훌륭한 인재를 떠나게 하며, 선진 제도와 탄탄한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기업문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힘찬 윤리 경영의 발걸음으로 건강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Q&A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구독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 윤리경영에서 '윤리라운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A 윤리 라운드란 경제 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각 나라마다 표준화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국제 경제 질서에 새롭게 등장한 블루라운드(노동 환경), 그린라운드(자연 환경) 등과 함께 윤리 라운드는 21세기 들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각 국가가 정한, 혹은 여러 국가가 합의한 윤리적 기준을 기업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국제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접어들어 뇌물이나 부정부패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부패라운드(CR: Corruption Round)의 전개로 국제거래에서 윤리적 기준을 갖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윤리 라운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OECD 뇌물방지협약, UN글로벌컴팩트, ISO26000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각 국가별 법령이 있습니다.

2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COP/COE 워크숍

CSR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COP(Communication on Progress)/COE(Communication on Engagement) 작성 방법 안내, COP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참가사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지원

- 주최 :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2월 13일(금)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2015년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의 주요 쟁점 설명회

기업들이 공정한 노무관리를 통해 노사협력을 이끌어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5년의 노무관리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회 개최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 일시 : 2015년 2월 10일(화)
- 장소 : 동대문구상공회 교육장

Sustainability Reporting: GRI G4 Certified Program

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GRI 보고서에 대한 이해 및 CSR 보고서를 GRI 표준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

- 주최 : The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5년 2월 11일(수)~12일(목)
- 장소 : San Antonio, TX

2nd Bahrain International CSR Conference & Exhibition 2015

기업, 정부, 학계, 국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CSR 트렌드와 사례를 공유하고 CSR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

- 주최 : BICSR
- 일시 : 2015년 2월 9일(월)~11일(수)
- 장소 : Gulf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장소 : San Antonio, TX

Yes 준비! Ok 윤리!

삼만원씩 내!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중만)

윤리경영 퀴즈

경제 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각 나라마다 표준화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 1) 우루과이 라운드 2) 그린 라운드
- 3) 윤리 라운드 4) 블루 라운드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2번, 동반성장지수**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2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윤병만님, 박미영님, 서동욱님, 조형주님, 김희선님입니다.
-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